



Q & A

닭에 대한 일반 상식

닭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기

필자는 평소 양계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닭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 많았다. 본고는 양계인은 물론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닭에 대한 궁금증을 발췌·게재하였다.



이 덕 수 축산연구소 연구관/농학박사
전 본지 편집위원

Q 닭을 가축으로 만든 동기는?

A 첫째는 투계나 오락의 목적으로 가축화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추측으로는

- ① 말레이 반도의 원주민들 사이에는 아직도 투계가 성행하고 있으며, 닭을 신성시 하여 신에게 바치는 제사 외에는 닭을 죽이지 않는 습관이 전해지고 있고,
- ② 인도에서는 죽은 사람을 매장하려할 때 닭이 잡새를 쫓아내고 양다리로 흙을 모아 무덤을 만들어 준다고 하여 닭을 새 중에서 왕조라 하여 귀하게 여기고 있으며,
- ③ 중국에서는 귀한 사람의 시신을 매장할 때 갈색계를 방사하여 닭들이 걸어 다닌 발자국이나 놀이터를 묘지로 정하는 습관이 있다고 하며,
- ④ 로마나 그리스에서는 전쟁 때 투계의 용맹성을 군인들에게 보여줌으로서 사기를 앙양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둘째는 시간을 알리는 태양승배의 종교적인 신앙물로서 가축화하였는데,

- 닭은 매일아침 태양이 솟아오르기 전 동틀 무렵에 일정한 시간을 지켜 큰 소리를 내어 울기 때문에 미개인들한테는 가장 무서운 밤의 암흑을 용감한 닭의 새벽울음에 의하여 귀신을 쫓고 밝은 아침을 맞아준다고 믿기 때문에 더욱 승배를 하였다고 추측된다.

셋째는 농경이나 목축이 발달함에 따라 닭의 특성을 이용하여 식량으로서 알과 고기를 얻기 위하여 닭을 사육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Q 우리나라 닭의 기원은?

A 닭은 적어도 5,000년전에 인도지역에서 가축화되었다고 추정되며, 약 3,000년전에 인도에서는 닭을 사육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닭을 사육하였는지는 확실치 않음

나 3세기 중엽의 삼국지, 위지동이전한전에 한국에는 꼬리의 길이가 5자가 넘는 아름다운 닭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삼국사기에 신라의 시조인 혁거세왕은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며, 신라4대의 탈해왕 9년에는 김알지를 얻을 때 닭이 숲속에서 울었다고 하여 신라의 이름을 「계림」이라 부르 계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닭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다.

1973년도에는 신라시대의 고분인 천마총에서 계란이 토출된 일도 있으며, 여러자료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약 2,000년전부터 닭을 사육한 것으로 추정된다.

Q 닭이 새벽에 우는 이유?

A 닭의 뇌 속에 있는 뇌하수체 전엽에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기능이 퇴화되어버린 송과체, 일명 생체 자명종이라 불리는 콩알정도 크기의 기관이 존재한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생체 내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각종 호르몬의 일주기 작용을 조절하고 있으며, 이 물질의 혈액내 농도가 하루 중 새벽에 가장 높아 생리적으로 그 시각을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Q 닭 1마리가 일생동안 생산할 수 있는 계란은 몇 개?

A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난황으로 발달하는 난포의 수는 1,000~3,000개이다.

Q 닭의 개체 식별능력은 얼마까지?

A 96수까지 기억을 하며 새로운 닭이 있을 경우 서열을 다시 결정한다.

Q 닭이 물을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는 이유는?

A 물을 먹을 때 혀로 물을 말아서 먹어야 하지만 닭의 혀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먹자마자 바로 넘겨야 하므로 고개를 들게 된다.

Q 닭은 빨간색은 잘 보고 놀라지만 청색이나 자색은 잘 보지 못하는데 이유는?

A 망막에 적색의 기름과 같은 물질이 많기 때문에 적색을 잘 본다.

Q 닭이 야간에 볼 수 없는 이유는?

A 동공조절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Q 1회 수정으로 계속 유정란을 생산할 수 있는 이유와 그 기간은?

A 난관(누두부)에 정자소(정자를 저장하는 장소)가 있어 정자를 보관하면서 배란 할때마다 수정시킨다. 1회 수정으로 약 2주까지 유정란 생산이 가능하지만 1주에 2회정도 수정하는 것이 좋고, 정자의 체내 최대 생존기간은 4주정도이다.